

전남 <산악전설>의 존재양상과 지역적 정체성

권도경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국어국문학 전공

dk11815@naver.com

- I. 머리말
 - II. 전남 <산악전설>의 존재양상 및 유형적 특징
 - III. 전남 <산악전설>에 나타난 지역적 정체성
 - IV. 맺음말
-

I. 머리말

산악은 전설의 핵심 이야기 대상인 각 지역 자연·문화·인물 중에서 자연 범주에 속한다. 자연물이든 인물이든 문화든 전설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비선택 대상에 비해 상대적인 특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특정 지역 자연·문화·인물을 이야기 대상으로 한 전설은 각 지역별 차별적인 특수성을 담아낸 인문적인 향토지역사이자 향토지리지의 성격을 띠게 된다. 특정 지역별 탁월한 자연·문화·인물을 이야기 대상으로 한 전설은 해당 지역별 자연·문화·인물을 증거물로 한 사실적인 향토지역사·향토지리지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면서 중앙집중적인 공적 역사서가 포괄해 내지 못하는 각 지역별로 차별화 되는 미시사로 향유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별 자연·문화·인물을 대상으로 한 전설은 해당 지역별 자연·문화·인물을 증거물적인 매개로 해당 지역민들의 차별적인 특수한 지역적 정체성을 형상화 하는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설의 주된 이야기 대상 중 자연물 영역에 속하는 산악은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하거나 빼어난 산형(山形)·산세(山勢)를 지니고 있거나 특정한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지역사별 특수한 내력을 지니고 있다. 각 지역별 산악을 대상으로 한 <산악전설>에서 이야기 하는 해당 지역별 특정 산악의 물리적 산형·산세와 역사적 내력은 그 자체로 타 지역에는 부재한 해당 지역만의 특수한 지역성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각 지역별 산악은 해당 지역민에게 단순히 특이한 형세를 지닌 물리적 자연물이거나 각 지역별 특수한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공간으로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아니다. 각 지역별 산악은 해당 지역별 자연물 중에서 가장 거대한 데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크기·높이를 지니고 있다는

물리성의 측면에서 태초 이래 해당 지역민에게 애니미즘¹적인 신앙 대상으로 존재해 왔다. 인격신에 대한 신앙관념이 출현한 이후에 각 지역별 산악은 천신이 하강해 있는 동시에 인간 삶의 안녕·풍요를 보장하는 인격신이 좌정해 있는 신성 공간으로 숭배되어 왔으며, 인문지리학적 지식 체계가 구축·발전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평안하고 풍요로운 인간 삶의 터전이 되는 각 지역별 명당지로 인식되어 왔다.

각 지역별 <산악전설>은 이처럼 해당 지역별 산악 관련 신앙·인식 체계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별 산악의 특이한 물리적 형세와 특수한 역사적 내력을 이야기하는 차별적 방식을 통해 해당 지역별 정체성을 드러낸다. <산악전설>이 각 지역별 산악 관련 특수한 신앙·인식 체계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별 산악의 특별한 물리적 형세와 특정한 역사적 내력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해당 지역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화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별 <산악전설>의 특징적 존재양상의 비교·대조를 통해 특정 지역의 차별적 정체성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각 지역별 <산악전설> 중에서도 특히 전남 지역 <산악전설>²이다. 호남 지역 <산악전설>은

-
- 1 여기서 '애니미즘'은 모든 사물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고 믿으며 숭배하는 원시종교의 기원적 사상을 의미하는 애니미즘의 보편적인 개념에 입각해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만유정령숭배(萬有精靈崇拜)로서의 애니미즘 개념은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의 『원시문화』(유기쁨(역), 『원시문화』(아카넷, 2018))에서 시작된 것이다.
 - 2 전남 <산악전설>에 관한 기존 연구는 단 두 편만이 존재하는데, 이들 두 편의 기존 연구는 크게 지리산 전설과 무등산 전설을 대상으로 한 두 부류로 대별된다. 전자는 '귀양 간 지리산 전설'이라는 독립적인 유형 분류를 통해 이성계에 대한 반감 표출을 향유의식으로 제시한 박기용의 「'귀양 간 지리산' 설화의 전승 배경과 변이 양상」(『우리말글』 36(2006))이고, 후자는 무등산 전설이 호남 지역 전설로서 이성계에 대한 대립각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 나경수의 「무등산 전설 연구」(『한국민속학』 41(2005))이다. 본 연구는 전남 <산악전설>의 존재양상적 특징으로부터 전남의 지역적 정체성을 도출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이들 두 편의 선행연구

이성계의 조선 건국과 관련된 일군의 전설 텍스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명 '귀양 간 지리산 전설'로 유명한 호남 지역 〈산악전설〉은 주로 전북 지역 〈산악전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성계의 조선 건국과 관련된 전남 지역 〈산악전설〉은 지리산이 아닌 무등산·천관산 같은 전남 산악을 대상으로 하여 전북 지역 〈산악전설〉과 다른 특징적인 전승양상을 통해 차별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이성계의 조선 건국 관련 전남 〈산악전설〉에서 확인되는 차별적인 전남 지역의 정체성은 전남 〈산악전설〉이 전북 〈산악전설〉과 공유하고 있는 바, 조선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풍수를 매개로 형상화 하고 있는 일군의 〈산악전설〉 유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 이 점에서 전남 〈산악전설〉에서 특정 전남 산악을 매개로 전남의 향토지역사와 향토지리지를 이야기 하는 방식은 여타 지역과 구분되는 전남 지역만의 일관된 차별적인 정체성에 기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남 〈산악전설〉의 특징적인 존재양상을 통해 여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전남 지역의 정체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전남 〈산악전설〉의 존재양상 및 유형적 특징

1. 전남 지역 신령형 〈산악전설〉

전남 지역 〈산악전설〉의 신령형은 인신(人神)이 출현하기 전에 일종의 자연신(自然神)으로 존재했던 전남 지역 산악의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는

들에 대해 차별화된다.

전설 유형이다. 자연신인 전남의 산악이 전남 지역의 자연적인 공간·지형·지리와 정치사회적인 체제를 형성하는 신성 권능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전남의 산악은 전남 지역공동체의 안녕을 유지·계승하거나 풍요를 제공하는 지역 수호신적 신성 직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남 지역 <산악전설>의 신령형은 크게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산악의 인격(人格)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산악의 비인격(非人格) 유형이다. 인격·비인격 유형의 핵심적인 구분 기준은 제3의 인격신의 존재 여부이다. 제3의 인격신이 존재하면 비인격 유형, 제3의 인격신 없이 산악이 마치 인격처럼 행위하면 인격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인격 유형에서 전남의 산악은 마치 인간과 같은 행위성을 시연한다. 이는 인간 이전에 선재(先在) 했던 거대 자연지물을 신격화 하여 신성시 하는 애니미즘적 사고의 소산이다. 전남 산악의 인격적인 행위 범위는 전남 지역의 자연적인 공간·지형·지리 형성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 전남 산악의 의인화 되어 있으니 전남 산악의 자연적인 공간·지형·지리 형성은 제3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전남 산악의 주체적인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후자의 비인격 유형에서 전남 산악의 인격은 제3자로 분화되고 다시 자연물로 복귀한다. 전남 산악이 인격 유형에서 지니고 있었던 인격적 신성성은 인간에게 전이되어 인격신이 출현하며 인격적 신성성을 상실한 전남 산악은 물화(物化)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남 산악이 인격 유형에서 직접 행하던 주체적인 신성 권능은 제3의 인격신을 매개로 간접화 되어 수행된다. 인격적인 전남 산악의 직접적인 신성 행위가 공간·지형·지리 형성의 자연적인 영역에 주로 관련된다면, 비인격적인 전남 산악의 간접화된 신성 권능은 지역 공동체 형성·유지·계승 및 수호의 정치사회적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전자의 의인화 유형에 속하는 전남 <산악전설> 텍스트에는 <걸어오다 멈춘 범바위산>·<내접산의 전설>·<들어오다 만 낙

엽산)·〈오산이 멈춘 이유〉(1)·〈오산이 멈춘 이유〉(2)·〈오산이 멈춘 이유〉(3)·〈오산과 쌀바위〉 등이 있고, 후자의 인격화 유형에 속하는 전남 〈산악전설〉 텍스트에는 〈무등산〉(1)·〈무등산〉(2)·〈송공산과 가룡리의 유래〉·〈영험한 오산〉 등이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해당 텍스트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① ㉠ ㉡ ㉢ ㉣한 부인이 빨래를 하던 중 산이 걸어들어오는 것을 보고 산이 온다는 말을 하며 적삼을 주었다. 이에 내적삼이라고도 하고 올래자 접할 접자를 써서 내접산이라고도 한다.³

㉤ 범같이 생긴 덩바우산이 화학산서 내려오는 걸 보고 ㉥부인이 산이 걸어오는구나라 하니 멈춰기 때문에 약산이 되었다. 만약 멈추지 않았다면 이로운 백호로 큰 고을이 되었을 것이다.⁴

㉦ ㉧빨래하던 부인이 낙엽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낙엽산이 들어온다고 말했더니 우뚝 서 버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현의 고을이 아니라 더 큰 읍지가 되었을 것인데, 산이 멈춰섰기 때문에 면밖에 못 되었다고 한다.⁵

㉨ 오봉산이 걸어오던 도중 ㉩발을 하던 여자가 산이 걸어간다면서 부지깥이로 두드리니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다. 오봉산이 섬진강을 끼고 건너갔다면 서울이 되었을 것이다.⁶

㉪ 오산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한 여자가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키면서 걸어간다고 하자 오산이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섰다. 오산이 계속 걸어갔더라면 구례가 더 잘 살았을 것이다.⁷

3 <내접산의 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전라남도 북내면설화6, 693~694쪽.
 4 <걸어오다 멈춘 범바위산>, 『한국구비문학대계』 6-10, 전라남도 청풍면설화16, 644~645쪽.
 5 <들어오다 만 낙엽산>,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전라남도 북내면설화2, 690~691쪽.
 6 <오산이 멈춘 이유〉(1),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서해숙, 「구례 지역 설화의 전승 양상과 지역적 특성」, 『민속연구』 20(2010), 115~116쪽.
 7 <오산이 멈춘 이유〉(2),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위의 논문.

㉑ 오산이 걸어가는데, ㉒부엌에서 불을 때던 처녀가 그 광경을 보며 부지깽이로 부뚜막을 두드리면서 산이 걸어온다 하니 그 자리에서 멈췄다. 오산에 쌀 나오는 바위가 있어 더 나오라고 부지깽이로 쭈시니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⁸

㉓ ㉔ ㉕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건국하려는 허락을 전국 산천신들에게 받기 위해 찾아다녔다. 무등산 꼭대기에 올라 무등산 여신에게 조선 건국의 허락과 도움을 간절히 빌었으나 무등산 여신은 역성혁명을 용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⁹

㉖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나서 나라의 여러 산천 신들에게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㉗무등산은 그의 혁명을 허락지 않았다 해서 벼슬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벼슬이 없는 산이라는 뜻의 無等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한자 等を 벼슬에 오른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벼슬이 없는 산이라는 뜻으로 본 것이다.¹⁰

㉘ 전남 장흥에 있는 천관산도 역시 지리산 전설과 똑같이 이성계가 그런 이유로 천관산을 홍양(지금의 고흥)으로 귀양을 보냈다고 한다.¹¹

㉙ ㉚ 송장군이 났다 해서 송공산이 척두산이 되었고 역도마가 났다 해서 역도산이 되었다.¹²

㉛ 마을에 큰 인물이 나지는 않으나 여순사건 때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은 것은 오산이 명산이기 때문이다.¹³

[자료1]-①은 전남 <산악전설>의 인격 유형이고, [자료1]-②는 전남 <산악전설>의 비인격 유형이다. 우선, [자료1]-① 전남 <산악전설>의 인격 유형은

8 <오산과 쌀바위>,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위의 논문.

9 <무등산>(1), 『한국구비문학대계』 6-2, 전라남도 함평군편, 729~731쪽.

10 <무등산>(2), 나경수, 「무등산 전설의 연구」, 『한국민속학』 41(2005), 659쪽.

11 <천관산>, 양기수, 『천관산』(향지사, 2003), 83쪽.

12 <송공산과 가룡리의 유래>, 『한국구비문학대계』 6-6, 전라남도 압해면설화39, 370~372쪽

13 <영험한 오산>,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서해숙, 앞의 논문.

다시 두 가지 패턴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전남의 산악이 인간처럼 도보로 움직이는 이동 패턴([자료]-①-㉠)이고, 다른 하나는 전남의 산악이 생산융합 패턴([자료]-①-㉡)이다. 전자의 이동 패턴에서 전남의 산악은 자기 스스로 걸어서 타지에서 해당 마을로 들어와 결과적으로 전남 각 지역의 지형·지리 공간을 형성한다. 이는 천지 창조의 창조신화적 권능이 특정 마을 단위로 축소된 것으로, 마을 창조의 창조신화적 신성성이 애니미즘적으로 구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료]-①-㉠의 인격적 이동 패턴에 나타나는 전남 산악은 마을 창조의 애니미즘적인 신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전남 지역의 마을을 창조하는 산악의 인격적인 신성성은 해당 마을의 풍요와 연계된다. [자료]-①-㉠-㉢~㉣를 보면, 전남 산악의 인격적인 주체적 이동 행위에서 확인되는 마을 창조의 창조신화적 신성성이 해당 마을을 더 큰 고을([자료]-①-㉠-㉢)·읍지([자료]-①-㉠-㉣)·서울([자료]-①-㉠-㉤), 즉 더 잘 사는 마을([자료]-①-㉠-㉥)로 전환시키는 풍요 창조의 핵심적인 열쇠라는 인식이 확인된다. 마을 여성의 발화에 의해 전남 산악의 인격적인 주체적 이동이 멈추지 않았다면 전남의 마을이 더 큰 고을·읍지에서 더 나아가 서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료]-①-㉠-㉢~㉣에서 확인되는 전남 산악의 창조신화적 신성성은 단순히 해당 마을의 지형·지리를 물리적으로 형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마을의 생활·문화·산업 수준을 현재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적인 풍요 창조의 가능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전남의 지형·지리를 창조한 전남 산악의 신성성이 전남의 지역 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적 풍요 창조의 신성성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인식이 된다.

전남 산악의 이동 패턴 속에 단지 가능태로 내재되어 있던 문화적인

풍요 창조와 신성성은 후자(자료-①-㉔)의 생산융합 패턴에서 전남 산악의 인격적인 물리적 풍요의 생산을 통해 구체화 되어 있다. [자료]-①-㉔의 생산융합 패턴을 보면 전남 산악의 일부인 바위에서 인간 생활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산물인 쌀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전남 산악이 지역 마을에 풍요를 가져다 줄 산물을 마치 인간처럼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①-㉔의 생산융합 패턴에서 지역민의 생활 수준은 이러한 전남 산악의 직접적인 쌀 생산을 통해 유지·향상될 수 있는 것인 바, 전남의 물리적 풍요를 창조하는 전남 산악의 신성성은 [자료]-①-㉔에서 가능태로만 제시되고 있었던 전남 지역 문화적 수준 향상의 신성성을 실현할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료1]-㉔ 전남 <산악전설>의 비인격 유형은 다시 두 개의 패턴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제3의 인간 신격 분화 패턴([자료]-②-㉔)이고, 다른 하나는 제3의 인간 신격 미분화 패턴([자료]-②-㉔)이다. [자료]-②-㉔의 제3의 인간 신격 분화형은 전남 산악이 [자료]-①의 인격 유형에서 본래 지니고 있었던 인격적인 신성성이 제3의 인간 신격으로 분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비인격적인 사물로 전이되는 패턴이고, [자료]-②-㉔의 인간 신격 미분화 패턴은 전남 산악이 [자료]-①의 인격 유형에서 본래 지니고 있었던 인격적인 신성성이 전남 산악의 물성(物性) 내부로 잠류되어 잊혀진 패턴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전자의 제3의 인간 신격 미분화형([자료]-②-㉔-㉔)에서 [자료]-①의 인격 유형에서와 같은 창조 권능을 지니고 있는 존재는 전남 산악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의 인물 신격인 무등산 여신이다. 고려를 대체할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자료]-①의 인격 유형에서 전남 산악이 인격적으로 직접 수행한 물리적인 마을 지형·지리 창조를 제도적인 국가 창조 차원으로 전환시킨 형태에 해당한다. 조선 국가 창조의 표면적인

주체는 이성계이지만 조선 국가 창조의 궁극적인 주체는 [자료]-②-㉠-㉡에서 이성계의 조선 국가 창조에 대한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무등산 여신이다.

[자료]-②-㉠-㉡의 무등산 여신은 [자료]-①의 인격 유형에서 창조 신직을 수행하던 전남 산악을 대체한 인물 신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료]-②-㉠-㉢를 보면 국가 창조의 신성 권능을 지니고 있는 무등산신의 기원이 무등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여성계의 역성혁명을 지지한 전국의 여타 산신들에게는 벼슬을 내렸지만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허락하지 않은 무등산([자료]-②-㉠-㉢-㉣)에게는 벼슬을 내리지 않았다는 언술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무등산과 무등산신은 [자료]-②-㉠-㉢의 언술 체계 속에서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계의 역성혁명지지 여부와 관련하여 벼슬을 받은 전국의 여타 산신에 대응되는 존재는 무등산 산신이 되어야 함에도 [자료]-②-㉠-㉢-㉣에서 굳이 무등산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는 무등산 산신이 곧 무등산이라는 인식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자료]-②-㉠-㉢에서 무등산신이 발휘하고 있는 국가 창조의 신성 권능은 본래 인격신이었던 [자료]-①의 전남 산악에서 인격 부분이 분리되어 무등산신이라는 새로운 창조의 인격신이 성립되는 대신 무등산이 비인격적인 자연물화 된 결과 원래 무등산신 지니고 있었던 천지창조의 신성 권능이 무등산신에게 분화된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자료]-②-㉠-㉡는 무등산에서 무등산신으로의 천지창조 인격신성 분화가 완료되어 여성성의 성별 부여까지 이루어진 이후의 텍스트인 반면, [자료]-②-㉠-㉢는 무등산에서 무등산신으로의 천지창조 인격신성 분화가 미완료된 단계의 텍스트로 무등산과 무등산신이 천지창조의 인격적 신성성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료]-②-㉠-㉡에서 확인되는 바, 무등산의 인격 분화 신격인

무등산 여신의 기원은 전남 산악의 인격 유형인 [자료]-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전남 산악의 주체적인 인격적 이동을 중지시키는 여성이다. 표면적인 언술 체계에서만 보면 [자료]-①에서 확인되는 전남 산악의 주체적인 인격적 이동을 중지시키는 여성은 일상적인 민중임이 드러난다. 전남 지역 마을의 한 부인([자료]-①-A-㉞)·여자([자료]-①-A-㉟) 혹은 밤·빨래·불때기 하는 부인([자료]-①-A-㉡·㉢)·여자([자료]-①-A-㉣)·처녀([자료]-①-B)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료]-①에서 전남 산악의 주체적인 인격적 이동을 중단시키는 여성은 단순한 민중 출신의 일상인이 아니다. 전남 산악의 인격적인 천지창조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주체는 천지창조의 신성 권능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료]-①의 전남 산악 인격 유형에 일괄적으로 등장하는 여성은 스스로 인격적인 이동을 감행함으로써 전남 지역의 특정 지형·지리를 만들어내는 전남 산악의 주체적인 창조 행위를 중단시킴으로써 전남 지역의 특정 공간을 창조한다. 인격적인 이동에 의해 자기 스스로가 전남 특정 지역의 지형지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남 특정 지역의 공간을 창조하는 전남 산악([자료]-①)과 달리, [자료]-①의 전남 산악 인격 유형에 일괄적으로 출현하는 여성은 전남 산악을 인격이 아닌 물격(物格)으로 대상화 하여 위치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전남 특정 지역의 공간을 창조한다고 볼 수 있다. 전남 산악의 인격 유형([자료]-①)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여성은 전국 각 지역의 자연지물을 창조한 마고할미 격의 천지창조 대모신(大母神)에 기원을 두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자료]-①에서 대모신 기원의 여성이 전남 산악의 주체적인 인격적 이동 사실에 대하여 인지·발화한 순간 전남 산악이 주체적인 인격적 이동성을 상실한 채 사물로서 객체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모신 기원 여성의 인지·발화 이전에는 자율적인 인격적 이동의 주체였던 전남

산악이 대모신 기원 여성의 인지·발화 이후에는 타자화 된 사물적 이동의 객체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본래 전남 산악이 지니고 있었던 천지창조의 신성 권능은 대모신 기원 여성에게로 전이가 이루어진다. 대모신 기원 여성은 전남 산악의 주체적인 인격적 이동 사실에 대한 인지·발화 이후부터 전남 산악에 내재해 있던 천지창조의 신성 인격이 분화된 천지창조의 주체적인 인격신적 존재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전남 산악은 전남 산악의 주체적인 인격적 이동 사실에 대한 대모신 기원 여성의 인지·발화 이후부터 대모신 기원 여성의 주체적인 천지창조 신직 수행을 위한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남 <산악전설> 비인격 유형의 인간 신격 분화형([자료]-②-㉔)에 등장하는 여성 산신은 전남 <산악전설>의 인격 유형([자료]-①)에서 본래 천지창조 신성 권능의 인격적인 주체였던 전남 산악으로부터 분화되어 나온 천지창조의 인격신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전남 <산악전설> 인격 유형에서 확인되는 바, 전남 산악이 본래 천지창조의 인격적인 신성 권능이 인격신의 형태로 분화되지 않고 단지 그 기억만이 상실되어 자연물적인 물성 내부에 잠류하고 있으면 전남 <산악전설> 비인격 유형의 인간 신격 미분화 패턴([자료]-②-㉕)이 된다. 표면적인 언술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전남 <산악전설> 비인격 유형의 자연물 패턴([자료]-②-㉖)에 등장하는 전남 산악은 전남 지역민의 생활사 전개를 위한 물리적인 환경적 배경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 산악을 물리적인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송장군·역도마 같은 지역인물·지역산물의 소출([자료]-②-㉗)이 이루어지거나 여순 사건 같은 민족사 관련 지역사가 전개([자료]-②-㉘)된 것으로 형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연물의 일부인 말의 탄생이 전남 산악을 물리적 환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몰라도 인간의 출생이 하필 전남 산악에서 이루어졌다는 언술 내용([자료]-②-㉔·[자료]-②-㉕)은 일상적인 논리로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자연물이 아닌 인간의 출생은 전남 산악이 아니라 전남 산악을 물리적인 환경으로 한 인간 마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논리 체계로 볼 때 합당하기 때문이다. 전남 산악에서 인간의 출생이 이루어졌다는 언술의 이면에는 전남 산악이 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풍요를 창조하는 주체라는 인식적 기원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남 <산악전설>의 인격 유형([자료]-①)에서 확인했던 바, 전남 산악이 전남 지역민 삶의 풍요를 생산하는 인격적인 창조신이라는 인식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료]-②-㉔·[자료]-②-㉕의 지역인물은 인간이 전남 산악에서 스스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전남 산악이 탄생시킨 소출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던 기억의 맥락 속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남 산악이 지역 풍요 생산의 인격적 주체로 존재하던 맥락적 기원 속에서 탄생된 인간은 일상적 존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②-㉔·㉕에 등장하는 송장군은 완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해안 도서 지역에서 당신으로 제향되는 허구적인 인물로, 송징(宋徵)¹⁴ 혹은 송대(宋大)¹⁵라는 각기 별개의 허구적인 이칭으로 지칭되어 왔다. 특히, 송대라는 이름으로 구체화 될 때의 송장군은 완도 지역민의 소작을 착취하는 세미선을 탈취하여 완도 지역민을 구호하는 미적추(米賊酋)¹⁶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송장군에 대한 완도 지역민의 배향이 완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에 구축되어 있었던 일정한 해상 세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송징과 송대 중 어떤 허구적 이름으로 구체화 되든 송장군은 완도를 중심으로

14 『新增東國輿地勝覽』, 康津縣 祠廟; 『新增東國輿地勝覽』, 康津縣 古蹟; 『朝鮮輿輿勝覽』, 1929.

15 林億齡, 『石川集』; 吳弘默, 『智島叢錄』, 1896.

16 林億齡, 위의 책.

한 전남 서남해안 도서 지역 일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담당하는 마을신으로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송장군에 대한 완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 일대 지역민들의 풍요 생산신적 향유는 고려의 최이(崔怡:~1249) 정권이 1243년에 재건된 완도 법화사를 중심으로 진도의 용장성에 방불한 삼별초 항몽 전략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완도와 압해도 등의 서남해 주요 섬을 연결하는 서남해권역 삼별초 항몽 네트워크를 축조¹⁷해나간 역사적 과정과 맞물려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완도 법화사를 중심으로 한 법화신앙은 완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 삼별초 항몽 네트워크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로 완도의 서남해안 삼별초 항몽 네트워크 전진 기지화가 시작된 이후 1247년을 전후 한 시기에 완도로 입도한 승려 혜일(慧日)은 송징을 주신으로 한 완도 좌좌리 당제의 부신(副神)으로 좌정해 있는 인물이다. 이는 완도 법화사의 법화신앙을 정신적 구심점으로 하던 완도 중심의 서남해안 삼별초 항몽 네트워크의 신앙체계가 완도 일대 서남해안 지역의 전통적 민속 신앙체계로 습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완도 일대 서남해안 지역의 전통적인 당신으로 존재해 왔던 송장군은 완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 삼별초 항몽 네트워크의 정신적 구심점인 완도 법화사 법화신앙의 상징인물로서의 혜일을 거느리고 있는 삼별초 장군 송징으로 구체화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 <산악전설>의 전승양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지점은 전남 산악이 지역 풍요 생산의 인격적 주체로 존재하던 맥락적 기원 관계에 의해 전남 산악에서 탄생한 송장군(자료-②-㉞-㉟)이 풍요를 생산하는 풍요 생산신으로서 전남 지역민에게 숭앙되어 마을 당신으로 배향되어 왔다는 사실이

17 강봉룡, 「완도 법화사지의 성격에 대한 신고찰: 고려 후기의 抗蒙과 白蓮結社, 그리고 宋徵과 관련하여」, 『역사학연구』 85(2022).

다. 여기에는 본래 전남 산악이 지니고 있었던 풍요 생산의 인격적 신성 권능이 인간에게 전이된 치환 관계가 내재해 있다. 즉, 고래로 전남 산악이 원래 지니고 있었다고 믿어져 왔으나 역사 시대의 전개와 함께 잊혀졌던 풍요 생산의 인격적 신성 권능이 전남 지역민의 의식 심층에서 잠류하고 있었던 바, 전남 산악이 지역 풍요 생산의 인격적 주체로 존재하던 맥락적 기원 관계의 무의식적 작동 과정에 의해 송장군(자료-②-㉑-㉒)이라는 허구적인 생산 풍요의 인격신으로 캐릭터화 되었다는 것이다.

2. 전남 지역 풍수형 <산악전설>

전남 지역 <산악전설>의 풍수형은 전남 지역 <산악전설>의 신령성에 내재되어 있는 전남 산악에 대한 신성성을 풍수지리라는 인문지리학의 과학적인 방식으로 풀이하고자 한 유형에 해당한다. 풍수학의 전제가 산·암석·강·대지 등이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지기(地氣), 즉 지령(地靈)을 내포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산·암석·강·대지의 지세(地勢)·지형(地形)은 지령(地靈)의 흩어졌다 다시 모이고 머물다 흐르는 음양오행(陰陽五行)적 현상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이라는 데 있다¹⁸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은 단지 전남 지역 특정 산악의 산세(山世)·산형(山形)의 소종래를 물리적으로 형상화 하려는 목적에서 출현한 유형이 아니라 전남 산악이 인격적 신령성의 주체였다는 전남 <산악전설> 신령형을 기원적 출발점으로 한 유형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남 지역 <산악전설>의 풍수는 전남 지역 산악에 대한 지역민의 신앙관념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본래

18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민음사, 1984); 이항녕, 「한국의 풍토와 사상」, 『한국사상총서』 IV(한국사상연구회, 1973).

전남 지역 산악이 지니고 있었다고 믿어져 왔던 신령성을 인문지리학의 공간·지형·지리 이론 체계에 따라 객관적·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의식적 변화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은 전남 <산악전설>의 신령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남 산악을 공간·지형·지리적 배경으로 한 인간의 인문주의적인 현실적·일상적 삶의 태도·방식이 강화되어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은 다시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전남 산악과 관련된 지역사와 지역 삶의 현상을 풍수와 관련하여 객관적·논리적으로 풀이한 풍수 설명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전남 산악의 풍수를 매개로 한 전남 지역민과 중앙행정부의 대립·갈등의 과정과 결과를 형상화 한 풍수 갈등 유형이다. 전자가 전남 산악의 산세·산형과 관련된 풍수를 통해 전남 산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생활사의 주요한 전통 유래와 현재적 생활상의 구체적인 부면을 인문과학적 체계 속에서 가능한 객관적·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지향의 소산이라면, 후자는 전남 지역을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 하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중앙행정부의 시도를 패배시킨 전남 지역 토착 세력의 힘의 기원을 전남 지역 산악의 풍수를 통해 인문과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한 지향의 소산이다.

[자료2] ① ㉠ 북내면의 명산인 천마산은 임경업 장군이 성를 만들기 위해 돌을 썰어서 모아놓은 것으로 천마의 형국과 같다.¹⁹

㉡ ㉠천주봉(天柱峯)은 하늘을 뚫고 있는 함평군 나산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남녀노소가 징·괘과리를 갖고 가서 기우제를 지냈다. ㉢천주봉에 올라 기우제를 지내면서 묘를 파고 봉화(烽火) 불을 피우면 내려오는 길에 반드시 소나기를 맞았기 때문에 ㉣나산면 사람들은 천주봉에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린다는 것을

19 <천마산의 유래>,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전남편, 북내면설화5, 692~693쪽.

신봉하고 있다. ㉔이런 일들은 명산 근방에 묘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²⁰

㉒ ㉑ 조선조 말엽인 1782년 무렵에 ㉑김서구(金敍九)라는 사람이 해남현의 현감으로 내려왔다. 현감 김서구가 뒷산에 올라가 지형을 살펴본 결과, 해남현 사람들이 드센 이유가 이 지형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㉒김서구가 해남 북쪽의 마늘처럼 생긴 호산(葫山)을 관속들을 시켜서 밤마다 석 자 세 치씩 깎아내렸으며, ㉓코가 센 소처럼 생긴 지형의 기운을 죽이기 위해 소 형상 지형의 정강이 부분에 해당하는 우슬재(友膝峙)도 깎아내렸으나, ㉔1년 4개월만에 쫓겨났다.²¹

㉒ 해남읍 사람들이 ㉑해남읍의 지형이 옥녀탄금형(玉女彈琴刑)이라고 한다. 해남읍의 삼산면과 현산면 경계에 병풍산(屏風山)을 두고 해남읍 뒷산에 있는 금강산(金剛山)에는 미암(眉岩)이 있는데, 금강산·미암의 지명은 읍기지명풍수(邑基地名風水)에 의한 것이다. 금강산과 미암은 각각 옥녀와 옥녀의 눈썹으로, 옥녀가 먼 곳에 병풍을 둘러서 치고 앉아 비파를 연주하고 있다고 설명된다. 옥천에서 해남읍으로 넘어가는 고개는 소의 무릎에 해당한다 하여 우슬치(牛膝峙)로 불린다. ㉒해남읍을 지나 학동에서 마산면 화내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아침고개 혹은 조령(朝嶺)이라고 했는데, 조선 말엽에 하남 현감들이 연안이씨(延安李氏)와 여흥민씨(驪興閔氏)의 두 토족들의 세도에 매일 아침 이 고개를 넘어 20리 밖의 마산면 화내리 여흥민씨 토족들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돌아와서야 정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침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해남읍의 토족(土族)인 연안이씨는 조선조 상신(相臣) 8명, 대제학(大提學) 7명, 청백리(淸白吏) 4명, 과거 문과 급제자 2백50명을 낸 10대 명문 중의 하나였고, 역시 해남읍의 토족인 여흥민씨는 민비의 세도 가문이었을 뿐 아니라 조선조 상신 12명, 대제학 3명, 과거 문과 급제자 2백44명을 냈으며 민비의 세도 가문이었을 뿐 아니라 마산면을 중심으로 8백50여 가구가 집단적으로 모여 살면서 기세와 세도가 대단했다. 이로 인해 해남현 현감들은 이 두 씨족의 시중을 들고 문안 인사를 드리느라 정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으며, 이 두 씨족의 비위에 거슬리면 바로 파직을 당했기 때문에 해남 현감 되는 것을 기피했다. 1782년에 김서구(金敍九)라는 사람이 해남현 현감으로 발령을 받아 도임하자

20 <천주봉과 기우제>, 『한국구비문학대계』 6-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433~435쪽.

21 <우슬재(友膝峙)>, 『한국구비문학대계』 6-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310~312쪽; <우슬재>, 김정호, 『전남의 전설』(전라남도, 1987), 310쪽.

마자 해남현 마을 뒷산인 금강산에 올라가 읍지형부터 살폈더니, ㉠금강산·우슬
치·조령·호산이 각각 주작(朱雀)·청룡(靑龍)·백호(白虎)·현무(玄武)인 명기(明基)인
것을 보고 해남 사람들이 거센 것은 이 지형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김서구가
관속들을 거느리고 밤마다 매운 마늘 같이 생긴 호산의 상봉(上峯)을 삼 척
삼 촌씩 깎아내렸으며, 코가 센 소의 기운을 죽이기 위해 소의 정강이에
해당하는 우슬재도 깎아내렸으나, 부임 한 지 1년 4개월 만인 1783년 6월에
쫓겨났으며, 그 후임인 김처승도 1년 6개월 만에 쫓겨났다.....²²

[자료2]-㉠은 전남 <산악전설> 풍수형의 풍수 설명 유형에 해당한다.
[자료2]-㉠-㉠A에서는 전남 산악인 천마산을 명산으로 전제한 후에 천마산의
명산성(名山性)을 천마(天馬)라는 신성수(神聖獸)를 닮은 산형(山形)의 형국
(形局)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남 산악의 명당 지세를 지형의 형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자 했다는 점에서 풍수학의 형국론
(形局論)²³에 따른 전형적인 풍수 설명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료2]-㉠-㉠B에서는 여기서는 전남 산악에서 이루어지는 바, 기우
제(祈雨祭)라는 전통적인 지역 풍속이 특정 마을의 주산에서 이루어지게
된 유래를 풍수의 전문적인 인문지리학적 이론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료2]-㉠-㉠B-㉠B를 보면 기우제를 지내면서 묘를 파거나
봉화 불을 피웠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는 풍수의 ‘묘 파기’ 의식²⁴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풍수의 근간인 음양오행 이론에 입각한 ‘산상분화(山上焚
火)’ 의식²⁵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자와 후자의 ‘묘 파기’와 ‘산상분화’는
일반적으로 마을 동제(洞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우제에서 강신(降神)·

22 <아침고개(朝嶺)와 우슬재(牛膝峙)>, 해남 군청 홈페이지.

23 최창조, 앞의 책.

24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69~1980).

25 문화재관리국, 위의 책.

헌주(獻酒)·독축(讀祝)·음복(飲福) 등의 제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 거행하는 풍수 기반의 의식이다. 전자의 ‘묘 파기’는 명산(名山)의 명당지(明堂地)에 조상의 묘를 구축하면 그 자손이 번창하게 된다는 풍수에 기반한 것으로, 명산 명당지의 영기가 한 집안의 묘터 구축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명산 기슭에 마을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가뭄이 지속되면 명산 명당지에 암장(暗葬)된 묘를 파내어 시체를 드러냄으로써 산신으로 하여금 부정(不淨)의 자취를 씻어내기 위한 비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묘터 부정화(不淨化)의 의식에 해당²⁶한다. 후자의 ‘산상분화’는 시초(柴草)·솔가지·장작 등을 산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지름으로써 양기(陽氣)인 불로 음기(陰氣)인 비구름을 불러들여 비를 내리게 하는 풍수의 음양오행 기반 의식에 해당²⁷하는 것으로, [자료2]-①-㉔-㉕에서 확인되는 봉화불 언급은 거점 산악 정상에 장작더미를 탑처럼 쌓아놓고 불을 붙임으로써 유사시 지역 간 연락 신호로 삼았던 봉화불과 기우제 중 산상에 높게 쌓은 시초·솔가지·장작에 피운 ‘산상분화’ 불의 유사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의 ‘묘 파기’([자료2]-①-㉔-㉕)와 관련하여 [자료2]-①-㉔-㉖에서 명산 근방에 묘를 쓴 암장이 가뭄의 원인이었다고 정확히 언급되어 있는 바, 전자의 ‘묘 파기’가 명산의 명당 관련 풍수의 인문지리학적·과학적 논리 체계에 기반한 기우제의 제의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전남 <산악전설> 풍수 설명 유형의 특징과 관련하여 [자료2]-①-㉔-㉖에서 새삼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자료2]-①-㉔-㉖에서 전자의 ‘묘 파기’와 같은 기우제 의식이 거행된 장소가 명산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 제의로 거행되었던 마을

26 문화재관리국, 위의 책.

27 문화재관리국, 위의 책.

동제로 거행되었던 고래로 기우제가 행해진 장소의 대표격 중의 하나는 대산(大山)인 바, 일상적인 자연물의 크기를 넘어선 대산이 곧 명산이라는 것으로, 거대 산악 자체가 하나의 명당지가 된다는 인식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자료2]-①-㉔-a를 보면 기우제 장소인 천주봉(天柱峰)이 함평군 나산면에서 가장 큰 산으로 지칭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설화 지역인 함평군 나산면의 가장 큰 산으로서 천주봉이 기우제 명산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2]-①-㉔-a에서는 이처럼 천주봉이 기우제 명산으로 선택된 원인을 유사 풍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하늘을 괴고 마치 천주(天柱) 즉, 하늘 기둥처럼 서있는 산악 형상 묘사를 통해 기우제 공간이 될 만한 전남 산악의 명산성(明山性)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풍수에서는 우주만물의 외형에 그 형상에 상응하는 기상과 기운이 내재해 있다는 전제 하에 산악의 형세를 인물금수(人物禽獸)의 형상에 비의하는 방식으로 지기를 설명하고 있는 바, [자료2]-①-㉔-a에서 전남 산악의 형상을 하늘 기둥 즉, 천주라는 우주적인 크기의 사물에 비의하는 언술 방식은 전남 산악의 명당 지세를 지형에 따라 설명하는 전형적인 풍수학 형국론 설명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2]-①이 풍수 설명 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된다.

둘째, [자료2]-①-㉔-d에서 전자의 ‘묘 파괴’와 같은 기우제 의식이 거행된 지점이 전남 산악의 명당지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자료2]-①-㉔-d의 전남 산악 명당지에서 행해진 기우제의 ‘묘 파괴’ 의식은 명당의 혈맥을 파괴하는 풍수파혈(風水破穴)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료2]-①-㉔-d는 기우제의 ‘묘 파괴’ 의식 이전에 이미 전남 산악 명당지의 혈맥을 파괴하는 암장이 선행된 경우로, [자료2]-①-㉔-d에서 거행된 기우제의 ‘묘 파괴’는 전남 산악의 명당지에서 선행된 암장으로 인한 풍수파혈을 풍수학의 부정화 논리에 의해 원상 복구하는 일종의 풍수복구(風水復

舊) 의식에 해당한다. [자료2]-①-③-④에서 기우제의 '묘 파기'와 함께 행해진 '산상분화'도 마찬가지다. '산상분화'는 불의 양기로 음기의 비구름을 불러 비를 내리게 한다는 풍수 관련 음양오행론에 입각해 있는 기우제 의식이기도 하지만, 명당지에 이미 가해져 있는 풍수파혈 관련 모든 사항을 불태워 없애서 부정화 시킴으로써 명당의 혈기를 원상 복구시킨다는 풍수복구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자료2]-①-③-④에서 확인되는 기우제의 '묘 파기'와 '산상분화'는 전남 산악 명당지의 풍수파혈을 원상 복구 시키는 의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2]-①은 전남 산악의 명당지 풍수복구 과정을 설명한 풍수 설명 유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2]-②는 전남 <산악전설> 풍수형의 풍수 갈등 유형이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풍수 갈등은 조선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전남 지역민과 전남 지역민을 풍수를 매개로 조선 행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 속에 편입시키고자 한 조선 중앙 행정부 파견 관리 간의 대립 형태를 띄고 있다. [자료2]-②-①-①을 보면 조선 중앙 정부가 전남 지역을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 파견한 관리는 김서구(金絺九)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8세기에 전라감찰사(全羅監察司)를 지낸 역사적 실존 인물 이서구(李書九, 1754~1825)이다. [자료2]-②-①-①에서 조선 중앙 행정부 대리인 이서구가 전남 지역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편입을 막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남 산악의 지형·지세인 바, 이서구가 전남 지역민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배 실현을 위해 풍수를 동원하여 전남 지역민의 기세를 꺾으려 한 것은 간접적인 해결법이 된다.

실제적으로 이를 위해 [자료2]-②-①-②와 [자료2]-②-①-③에서 동원되어 있는 것은 [자료2]-①-①에서와 같은 풍수의 형국론이다. [자료2]-②-①-

①와 [자료2]-②-①-③에서는 전남 해남 지역민이 조선 정부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에 복속되지 않는 드센 기질의 기원이 전남 해남 산악인 호산(葫山)과 우슬재(牛膝峙)의 각각 마늘처럼 맵게 생기거나 소의 정강이처럼 강하게 생긴 형국(形局)에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자료2]-②-①-②와 [자료2]-②-①-③에서 이서구에 의해 행해진 전남 산악 지형 산산(削山)은 표면적으로 본다면 일종의 풍수파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면적으로 본다면 전남 산악 풍수의 강한 형국에 응취(凝聚)되어 있는 바, 조선 행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에 종속되기를 거부하는 전남 지역민의 강력한 독자성에 대한 해체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렇게 [자료2]-②-①-②·[자료2]-②-①-③에서 조선 중앙 정부에 의해 전남 산악 풍수파혈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민을 중앙집권체제에 복속시키고자 한 조선 중앙 행정부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자료2]-②-①-④를 보면 [자료2]-②-①-②·[자료2]-②-①-③에서 조선 중앙 행정부의 대리자인 이서구에 의해 이루어진 전남 산악의 풍수파혈 결과는 전남 지역으로부터의 이서구 축출로 결구되고 있다. [자료2]-②-①-④에서 확인되는 바, 조선 중앙 행정부의 대리인인 이서구 축출은 풍수파혈로도 막지 못할 정도로 전남 산악의 형국에 응취되어 있던 전남 지역민의 독자적 기상이 강력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자료2]-②-①는 전남 산악에 대한 조선 중앙 행정부의 풍수파혈을 매개로 전남 지역을 중앙행정적인 지배체제 하에 종속시키고자 한 조선 중앙정부와 전남 지역민의 갈등을 형상화 한 텍스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2]-②-②는 [자료2]-②-①와 동일하게 전남 해남 산악의 풍수파혈을 매개로 전남을 조선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속에 복속시키고자 한 조선 행정부와 전남 지역민의 갈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 한 경우다. 풍수 갈등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앞서의 [자료2]-②-①에서 보다 [자료2]-②-

㉔에서 상대적으로 형상화가 구체화 되어 있는 부분은 대략 두 가지다. 첫째, 풍수파혈의 물리적인 표면적 대상인 전남 산악의 형국에 대한 풍수 이론적인 묘사의 구체화다. [자료2]-㉔-㉔-㉔-㉔-㉔을 보면 [자료2]-㉔-㉔-㉔에서 언급되었던 호산·우슬재가 왜 전남의 풍수 명당인지가 해남 지역 전체 지형의 거시적인 체계에 대한 풍수 이론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예컨대, [자료2]-㉔-㉔-㉔-㉔에서는 전남 산악 호산·우슬재를 포함하고 있는 해남 지역 전체 지형 자체가 옥녀가 멀리 병풍을 치고 앉아 비파를 타고 있는 듯한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의 명당이라는 것으로, 병풍산(屏風山)·금강산(金剛山)·미암(眉巖) 등 호산·우슬재 주변 산악의 지명도 풍수 이론의 형국론에서 유래한 사실이 밝혀져 있다. [자료2]-㉔-㉔-㉔-㉔에서는 호산·우슬재를 포함하여 옥녀탄금형인 해남읍지를 둘러싸고 있는 금강산·조령 등이 각각 주작(朱雀)·청룡(靑龍)·백호(白虎)·현무(玄武)의 지형·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명당지의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는 네 가지 산이 좌청룡(左靑龍)·우백호(右白虎)·전주작(前朱雀)·후현무(後玄武)의 네 가지 산, 즉 사신사(四神砂)를 형성한다는 풍수의 장풍법(藏風法)²⁸에 입각하여 전남 산악의 풍수 명당성(明堂性)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둘째, 풍수파혈의 정신적인 이면적 대상인 전남 지역의 향촌 토착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화이다. [자료2]-㉔-㉔-㉔-㉔을 보면 [자료2]-㉔-㉔-㉔에서 전남 해남 지역 산악의 풍수파혈에도 불구하고 그 독자성이 와해되지 않은 결과 오히려 풍수파혈 주체인 이서구를 축출시켰던 전남 해남 지역 세력의 실체가 해남 세거(世居) 토족인 여흥민씨(驪興閔氏)와 연안이씨(延安李氏)임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해남 세족 여흥민씨는 조선 초기 계유정난(癸酉靖難)에 연루되었던 이조판서 민신(閔伸, ?~1453)의 일문이 참형을 당하는

28 최창조, 앞의 책.

가운데 막내아들 민중건(閔仲鵞)만이 살아남아 해남으로 피신한 사건을 계기로 성립²⁹되었는데, 현재의 해남군 마산면 일대를 중심으로 세거지가 형성되었으며 계유정난 때 참형을 당한 민신·민보창·민보해·민보석·민보홍 부자를 제향하는 미산서원(眉山書院)이 해남읍 해리에 건립³⁰되어 있을 정도로 조선조에 해남 지역에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 또 다른 해남 세족 연안이씨는 조선중기 이조판서·형조판서를 두루 지낸 명상서(名尙書) 이후백(李後白, 1520~1578)의 손자 이유길(李有吉)이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살해된 부친 이선경(李善慶)의 복수를 위해 해남 삼산면으로 내려온 사건을 계기로 이유길의 모든 형제들이 해남 일대에 정착하면서 성립³¹되었는데, 이유길은 이순신의 명량대첩에 참전하여 세운 공으로 함흥관관을 역임한 이래 명나라 유정의 원군에 종군하여 큰 전공을 연달아 세운 결과 숙종 때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을 뿐 아니라 고종 때 특별히 유허비각(遺墟碑閣)이 건립³²되었을 정도로 세거지인 현재의 해남군 삼산면 일대에서 세력을 떨쳤다.

따라서 [자료2]-②-③에서는 [자료2]-②-④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전남 지역 세력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 함으로써 [자료2]-②-④와 공유하고 있는 바, 전남 산악 풍수를 매개로 한 조선 중앙 행정부와 전남 지역민의 갈등 결과에 대해 납득한 만한 근거를 보충함으로써 궁극적

29 최덕교·이승우, 『한국성씨대관』(창조사, 1971); 해남신문사, 『해남의 성씨』(해남신문사, 2002); 우리마을의삶과문화편찬위원회,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상)』(해남문화원, 2011); 해남군지편찬위원회, 『해남군지(상)』(해남군지편찬위원회, 2015).

30 최덕교·이승우, 위의 책; 해남신문사, 위의 책; 우리마을의삶과문화편찬위원회, 위의 책.

31 최덕교·이승우, 위의 책; 해남신문사, 위의 책; 우리마을의삶과문화편찬위원회, 위의 책.

32 최덕교·이승우, 위의 책; 해남신문사, 위의 책; 우리마을의삶과문화편찬위원회, 위의 책.

으로 전남 <산악전설> 풍수형에서 전개되는 풍수 갈등 양상을 상대적으로 실감나게 묘사해 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자료2]-②-㉔는 조선 중앙 행정부와 전남 지역민의 갈등이라는 전남 지역사의 특수한 국면 전개 양상 및 원인에 대한 형상화를 [자료2]-②-㉓ 보다 구체적인 풍수 이론과 지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훨씬 구체화된 방식으로 전개한 텍스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전남 지역 단순 설명형 <산악전설>

전남 지역 <산악전설>의 단순 설명형은 전남 산악의 지명 유래를 단순히 설명해 놓고 있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전남 산악에 대한 신성관념 기원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며, 전남 산악의 지형·지세에 대한 풍수학적인 풀이를 통해 특수한 지역사적 국면을 형상화 하고 있지도 않다. 전남 지역 <산악전설>의 신령형·풍수형에서도 전남 산악에 대한 지명 유래 설명이 확인되기도 하나 전남 지역 <산악전설>의 단순 설명에서는 전남 산악에 대한 신성관념 기원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며 전남 산악의 지형·지세에 대한 풍수학적인 풀이를 통해 특수한 지역사적 국면을 형상화 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전남 지역 <산악전설>의 신령형·풍수형에서도 산악과 차별화 된다.

전남 <산악전설>의 단순 설명형은 크게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단순히 지형에 따른 전남 산악 지명의 유래를 설명한 비역사적(非歷史的)인 설명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사건을 중심으로 전남 산악 지명의 유래를 설명한 역사적인 설명 유형이다.

[자료3] ① 관관리 앞 들녘이 옛날에는 바다로, 바다에서 용이 놀다가 그

산을 올라가서 승천했기 때문에 용 모양의 능선이 남아있다.³³

② ㉠ 두대산이 노적봉인데,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왕건(이순신)이 잠자다고 해서 노적봉이라고 한다.³⁴

㉡ 윤선도가 노화도 보길도로 건너가던 때 잠깐 쉬어가던 곳이라고 윤도산봉이라고 한다.....³⁵

㉢ 이순신이 두 대산에 마름을 군량미처럼 쌓아놓고 쌀뜨물을 영산강에 풀어서 군량미를 높게 쌓아놓은 노적봉처럼 보이게 했다.³⁶

㉣ 조선조 말엽 해남에 부임해 온 현감들이 연안 이씨와 여흥 민씨 두 벌족들의 세도 때문에 그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일을 하면 당장 파직을 당했다. 그래서 해남 현감들이 아침마다 고개 넘어 20리 밖에 있는 여흥 민씨들을 찾아가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 돌아와 정사를 보곤 했기 때문에 이 고개를 아침고개, 즉 조령(朝嶺)이라 부르게 되었다.³⁷

[자료3]-①은 전남 <산악전설> 단순 설명형의 비역사적인 설명 유형이고, [자료3]-②는 전남 <산악전설> 설명형의 역사적인 설명 유형이다. [자료3]-①에서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 및 관련 역사적 인물·사건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로 단지 바다 용이 산 능선을 타고 올라가 승천한 모양을 닮은 산형(山形)에서 전남 산악의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인 설명 유형이 된다. 반면, [자료3]-②-㉠~㉣에서는 전남 산악의 지명이 고려·조선조 역사적 인물인 왕건·윤선도·이순신 및 조선조 해남

33 <용이 승천했다는 용당산의 내력>, 『한국구비문학대계』 6-7, 전남편, 도초면설화 6, 789~790쪽

34 <파군교와 노적봉(두대산)>, <전남 무안군 몽탄면 일대 조사보고>, 『남도민속연구』 7(2001), 35~36쪽.

35 <윤고산과 윤도산봉>, 위의 자료, 153~154쪽.

36 <두대산>, 위의 자료, 42쪽.

37 <아침고개>, 『한국구비문학대계』 6-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48~49쪽; <아침고개>, 김정호, 『전남의 전설』(전라남도, 1987), 310~312쪽.

현감과 관련된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설명 유형이 된다.

[자료3]-②-㉠~㉡와 같은 전남 <산악전설>의 역사적 설명 유형에서는 전남 산악이 역사적 인물·사건과 관련된 일종의 증거물로 기능한다. 이로 인해 [자료3]-②-㉠~㉡와 같은 전남 <산악전설>의 역사적 설명 유형에서 전남 산악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실재했던 전남 지역 지역사의 일부분으로 전남 지역민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점에서 [자료3]-②-㉠~㉡와 같은 전남 <산악전설>의 역사적 설명 유형은 공적인 역사가 아우를 수 없는 지역사의 공백을 메워주는 일종의 지역사의 일부분으로 향유될 수 있다.

Ⅲ. 전남 <산악전설>에 나타난 지역적 정체성

전남 <산악전설>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전남의 지역적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기 완결적 중심성이다. 전남 <산악전설>의 신령형에서는 전남 지역의 우주 중심으로서의 주체적인 자기규정 인식이 확인된다. 전남 산악의 인격적인 주체적 공간 창조를 통해 전남 산악을 중심으로 세계가 배치되어 있다는 전남 지역민의 자기 중심적인 세계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중심성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인 차원의 기원적 인식이 된다.

이처럼 세계 중심으로서의 전남의 자기규정은 한반도 전 지역을 통합적으로 지배한 민족적인 왕조국가 조선 건국의 승인 주체가 전남 산악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전남 <산악전설>의 신령형에서도 확인된다. 한반도

전역을 통합한 민족국가의 건국이 인격적인 신성 권능 주체인 전남 산악의 허락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 속에는 전남 지역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는 민족국가 조선의 수도지나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전 지역은 서울에 위치한 조선 중앙 행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 하에 종속되어 있는데, 조선 중앙 행정부의 수장인 조선 태조 이성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체제를 구축·발동시키려면 인격적인 신성 권능 주체인 전남 지역 산악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조선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체제의 중심은 전남 산악에 있다는 논리가 된다.

그런데 전남 <산악전설>의 신령형에서 확인되는 전남 지역의 자기 중심성은 자기 완결적이라는 점에서 같은 호남 권역에 편재되어 있는 전북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특수성을 갖는다. 예컨대, 전남 <산악전설>에서 무등산·천관산 등 이성계의 조선 건국 허가 주체로서의 전남 산악은 전북 <산악전설>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하며, 이성계에 의한 이동도 전북 내부에서 이루어진다.([자료1]-②-①) 즉, 조선 건국 허가 주체로서의 전남 산악이 본래 전남 지역에 위치해 있던 것이지 전남 밖의 다른 지역에서 이입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전북 <산악전설>에서 이성계의 조선 건국 허가 주체로 설정되어 있는 전북 산악은 지리산 단독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본래 전북 이외의 타 지역의 산악이었던 것이 이성계의 건국 이후에 전북으로 이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4] ① ① 이성계가 왕이 되려는데 다른 산신은 다 허락을 해주되 지리산 신은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이성계가 원래 경상도의 지리산을 전라도로 귀양보냈다.³⁸

38 <지리산이 귀양 온 것과 비암사골의 유래>, 『한국구비문학대계』 5-1, 전북 남원군

㉞ 이성계가 전국으로 다니며 산제(山祭)를 지냈는데 지리산 여신령만 이성계가 이신이군(以臣伐君) 했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남해 금산이 주동이 되어 이성계의 등극을 찬성하자 이성계가 비단 금(錦) 자를 넣어서 금산(錦山)으로 이름을 고쳐 주었다. 반면 지리산은 원래의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귀양을 보냈다.³⁹

㉟ 옛날 진시황이 등극을 하려고 경상도에 지리산 산제(山祭)를 드리러 왔다. 진시황은 소금장수로부터 지리산 산제가 부정을 타서 산신령이 흠향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산제를 올렸다. 그래도 지리산 산신령이 허락을 하지 않자, 진시황이 등극한 뒤 지리산 여산신을 전라도로 귀양 보냈다.⁴⁰

㊱ 지리산은 원래 경상도 지리산이었다. 다른 지역 산신들은 모두 태조 이성계의 편을 들었으나 지리산 산신만 우투리 편을 들었다. 태조 이성계가 우투리를 잡아 죽이고 지리산을 전라도로 귀양 보냈다. 사실 이신벌군(以臣伐君) 한 것은 이성계였다.⁴¹

㊲ ㉞ 이성계가 등극을 하려고 산천을 다니다가 지리산에 도착했다. 이성계가 밤에 빈 집에 묵으면서 들으니 지리산 산신이 윗도리를 인정하고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이성계가 윗도리를 찾아내서 죽이고 등극했다. 이로 인해 지리산은 전라도 개 땅이 되었다.⁴²

㊳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운봉에 가서 산제를 올렸다. 소금장수로부터 산제가 부정 타서 산신령이 흠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산제를 올렸다. 다른 산신령들은 이성계의 등극을 허락했으나 지리산 여산신령만

산내면 설화4. 91쪽; <지리산 산신령과 이성계>, 『한국구비문학대계』 5-1, 전북 대강면설화14. 144~145쪽.

39 <지리산이 귀양 온 이유>, 『한국구비문학대계』 5-1, 전북 남원군 이백면 과립리, 183쪽.

40 <산신의 거절 전설>, 전북 남원군 산내면 부운리, 崔來沃,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41 <우투리에게 한 약속 전설>,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역리, 위의 책.

42 <웃도리 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5-4,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347쪽

우투리의 등극을 주장했다. 이에 이성계가 바다 속에 숨어 있는 우투리와 우투리의 모친을 죽이고, 자신의 등극을 반대한 지리산 여산신령을 전라도로 귀양 보냈다.⁴³

㉠ 이태조가 왕이 되려고 지리산 산신령에게 허락해 달라고 했으나 지리산 산신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지리산에서 사람이 하나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이태조가 칼로 산신의 팔뚝을 자르고 지리산을 전라도로 귀양 보냈다.⁴⁴

㉡ 이태조가 등극하고 싶었으나 지리산을 무서워했다. 지리산이 태조와 맞서려고 천하장사 동구리를 내자 이성계가 병사들을 시켜 동구리를 죽였다. 이성계가 등극한 후 지리산을 제외한 모든 산신의 산신령에게 항복을 받았다. 지리산 산신령이 동구리의 죽음에 화가 나서 이성계에게 가지 않자 애태조가 제사를 올렸다. 지리산 산신령이 매를 타고 서울로 가서 이태조에게 인사는 하지 않고 대궐 처마 방울만 흔들고 돌아가자, 이성계가 화가 나서 지리산을 귀양 보냈다.⁴⁵

[자료4]는 지리산이 조선 건국의 허가 주체로 형상화 되어 있는 전북 <산악전설> 텍스트들이다. 현재 전북 지역에 전승되는 전북 <산악전설> 텍스트의 신령형 중에서 전북 산악이 조선 건국의 허가 주체로 설정되어 있는 텍스트는 상기 [자료4]의 11편이 전부다.

그런데 이 11편의 전북에 현전하는 텍스트들 중에서 [자료4]-㉠-㉡를 제외한 10편의 텍스트에서 조선 건국 허가 주체로서의 지리산 소종래를 전북이 아닌 여타 지역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예컨대, [자료4]-㉠-㉠~㉡에서는 지리산의 출신지가 경상도라고 밝혀져 있고, [자료4]-㉠-㉠~㉢에서는

43 <우투리 전설>, 전북 남원군 산내면 부운리, 崔來沃, 앞의 책, 293쪽.

44 <외팔이 여산신령 전설>, 전북 남원군 운봉면, 위의 책, 301쪽.

45 <동구리 전설>, 전북 남원군 운봉면 서천리, 위의 책, 292쪽.

지리산의 출신지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지리산이 이성계에 의해 전라도로 귀양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본래 지리산의 소종래가 전라도가 아닌 다른 지역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전북은 여타 다른 지역 소속이었다가 전북으로 귀양 온 산악을 자기 세계의 중심으로 한 지역이 된다는 점에서 보자면 전북 <산악전설>에서 확인되는 자기 중심성은 자기 지역 내적인 완결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남 <산악전설>에서 조선 건국의 허가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전남 산악은 본래부터 전남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에서 전남 <산악전설>에서 확인되는 전남 지역의 세계 인식은 전남 지역 자체 내적으로 자기 완결성을 지닌다는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배타적 독자성·우월성이다.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는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질서에 종속되지 않고자 하는 배타적인 독자성이 확인된다.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 풍수의 인문지리학적 이론·지식을 매개로 전북 지역민이 조선 중앙정부의 판관자와 벌이고 있는 간접적인 갈등은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배타적 독자성이 저항적으로 실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 전개되는 바, 풍수를 매개로 한 전북 지역민의 조선 중앙정부 판관자와의 간접적인 갈등은 전남 지역민의 승리로 귀결된다. 이는 전남 지역이 중앙정부에 대해 지니고 있는 배타적 독자성이 상대적 우월성을 전제로 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처럼 전남 <산악전설> 풍수형에서 나타나는 중앙정부에 대한 배타적 독자성은 같은 호남 권역에 속하는 전북 <산악전설>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는 궁극적으로 풍수를 매개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질서에 대한 전북 지역의 종속적

편입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료5] ㉔서울에서 남원에 부임하면 호락산(虎峪山)의 기운을 못 이겨 가버렸다.
㉕호락산의 산세가 세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㉖남원부사가 호락산의 이름을 견두산(犬頭山)으로 바꿔버렸다. 호랑이를 개로 바꾸어 산의 기운을 약화시킨 것이었다. ㉗이후로는 남원 사람들이 부사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한다.⁴⁶

[자료5]는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이다. 호랑이를 닮은 호락산(虎峪山) 산세에 전북 지역의 드센 기운이 응취되어 있다는 [자료5]-㉕의 설명이나 남원부사가 호락산의 이름을 견두산(犬頭山)으로 바꾸자 호랑이를 닮은 산세에 응취되어 있던 드센 기운이 약화되었다는 [자료5]-㉖의 설명은 모두 풍수학의 형국론에 입각한 지세 설명에 해당한다.

이처럼 산악의 지세에 대한 풍수학적인 설명 속에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질서에 편입시키고자 한 조선 중앙정부 중앙정부에 대해 전북 지역민이 지니고 있었던 반감이 비의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과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이 동일하다.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와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도 조선 중앙행정부가 파견한 관리자를 풍수의 힘을 빌어 축출([자료5]-㉔)하지만 궁극적으로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는 조선 중앙행정부의 파견자에 의해 풍수파멸된 지세를 복원하지 못하고 조선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 속에 편입([자료5]-㉗)된다는 점에서 전남 <산악전설>과 차별화 된다.

반면,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 조선 중앙행정부의 파견자에 의해 자행된 전남 산악에 대한 풍수파멸은 전남 산악의 지세에 대한 궁극적인 해체로 귀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풍수복원이 이루어

46 <호락산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5-1, 송동면설화22, 292~293쪽.

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여기에는 파멸된 풍수를 복구시킬 정도로 강력한 전남 산악 지세를 매개로 중앙정부에 대한 전남 지역민의 배타적 독자성과 우월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에서 확인되는 배타적인 독자성과 우월성은 같은 호남 권역의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 궁극적으로 확인되는 종석적 편입성과 차별화 된다는 점에서 전남 지역의 특수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전남 <산악전설>의 특징적인 존재양상을 통해 여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전남 지역의 정체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전남 <산악전설>이 특정 전남 산악을 매개로 전남의 향토지역사와 향토지리지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여타 지역과 구분되는 전남 지역만의 일관된 차별적인 정체성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전남 <산악전설>의 존재양상적 특징으로부터 전남 지역만의 차별적인 정체성을 규명하였다.

전남 <산악전설>은 크게 신령형·풍수형·설명형으로 분류된다. 전남 <산악전설>의 신령형은 인신이 출현하기 전에 일종의 자연신으로 존재했던 전남 지역 산악의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는 전설 유형으로, 전남의 산악이 전남 지역의 자연적인 공간·지형·지리와 정치사회적인 체제를 형성하는 신성 권능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전남의 산악은 전남 지역공동체의 안녕을 유지·계승하거나 풍요를 제공하는 지역 수호신적 신성 직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은 전남 지역 <산악전설>의 신령성에 내재되어 있는 전남 산악에 대한 신성성을 풍수지리라는

인문지리학의 과학적인 방식으로 풀이하고자 한 유형으로, 전남 지역 산악에 대한 지역민의 신앙관념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본래 전남 지역 산악이 지니고 있었다고 믿어져 왔던 신령성을 인문지리학의 공간·지형·지리 이론 체계에 따라 객관적·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의식적 변화의 소산이다. 전남 〈산악전설〉의 설명형은 전남 산악의 지명 유래를 단순히 비역사적·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해 놓고 있는 유형으로, 여기에는 전남 산악에 대한 신성관념 기원이 전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남 산악의 지형·지세에 대한 풍수학적인 풀이를 통해 특수한 지역사적 국면을 형상화 하고 있지도 않다.

전남 〈산악전설〉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전남의 지역적 정체성은 자기 완결적 중심성과 배타적 독자성·우월성의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전남 〈산악전설〉의 신령형에서는 전남 지역의 우주 중심으로서의 주체적인 자기규정 인식의 기원이 확인 되는데, 이는 한반도 전 지역을 통합적으로 지배한 민족적인 왕조국가 조선 건국의 승인 주체가 전남 산악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전남 〈산악전설〉의 신령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 이처럼 전남 〈산악전설〉에서 이성계의 조선 건국 허가 주체로서의 전남 산악의 이동은 전남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래 전북이 아닌 경상도 지역의 산악이었던 것이 이성계의 건국 이후에 전북으로 이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전북 〈산악전설〉에 비해 자기 지역 내적인 완결성을 지닌다.

후자와 관련하여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는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질서에 종속되지 않고자 하는 배타적인 독자성이 확인되는데, 풍수의 인문지리학적 이론·지식을 매개로 전북 지역민이 조선 중앙정부의 판관자와 벌이고 있는 간접적인 갈등은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배타적 독자성이

저항적으로 실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 전개되는 바, 풍수를 매개로 한 전북 지역민의 조선 중앙정부 파견자와의 간접적인 갈등은 전남 지역민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전남 지역이 중앙정부에 대해 지니고 있는 배타적 독자성이 상대적 우월성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에서 확인되는 배타적인 독자성과 우월성은 같은 호남 권역의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 궁극적으로 확인되는 종석적 편입성과 차별화 된다는 점에서 전남 지역의 특수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

2. 단행본

남재철, 『강산 이서구의 삶과 문학세계』. 서울: 소명, 2005.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서울: 문화재관리국, 1969~1980.

최덕교·이승우, 『한국성씨대관』. 서울: 창조사, 1971.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서울: 일조각, 1981.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1984.

해남군지편찬위원회, 『해남군지(상)』. 해남: 해남군지편찬위원회, 2015.

해남문화원,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상)』. 해남: 해남문화원, 2011.

해남신문사, 『해남의 성씨』. 해남: 해남신문사, 2002.

3. 논문

강봉룡, 「완도 법화사지의 성격에 대한 신고찰: 고려 후기의 抗蒙과 白蓮結社, 그리고 宋徵과 관련하여」. 『역사학연구』 85, 2022, 39~71쪽.

나경수, 「무등산 전설 연구」. 『한국민속학』 41, 2005, 225~253쪽.

박기용, 「'귀양 간 지리산' 설화의 전승 배경과 변이 양상」. 『우리말글』 36, 2006, 147~180쪽.

서해숙, 「구례 지역 설화의 전승양상과 지역적 특성」. 『민속연구』 20, 2010, 103~136쪽.

한미옥, 「전남 무안군 몽탄면 일대 조사보고」. 『남도민속연구』 7, 2001, 243~288쪽.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남 <산악전설>의 특징적인 존재양상을 통해 여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남 지역의 정체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전남 <산악전설>은 크게 신령형·풍수형·설명형으로 분류된다. 전남 <산악전설>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전남의 지역적 정체성은 자기 완결적 중심성과 배타적 독자성·우월성의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전남 <산악전설>의 신령형에서는 전남 지역의 우주 중심으로서의 주체적인 자기규정 인식의 기원이 확인되는데, 이는 한반도 전 지역을 통합적으로 지배한 민족적인 왕조국가 조선 건국의 승인 주체가 전남 산악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전남 <산악전설>의 신령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 이처럼 전남 <산악전설>에서 이성계의 조선 건국 허가 주체로서의 전남 산악의 이동은 전남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래 전북이 아닌 경상도 지역의 산악이었던 것이 이성계의 건국 이후에 전북으로 이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전북 <산악전설>에 비해 자기 지역 내적인 완결성을 지닌다.

후자와 관련하여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는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질서에 종속되지 않고자 하는 배타적인 독자성이 확인되는데, 풍수의 인문지리학적 이론·지식을 매개로 전북 지역민이 조선 중앙정부의 판관자와 벌이고 있는 간접적인 갈등은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지배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배타적 독자성이 저항적으로 실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 전개되는 바, 풍수를 매개로 한 전북 지역민의 조선 중앙정부 파견자와의 간접적인 갈등은 전남 지역민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전남 지역이 중앙정부에 대해 지니고 있는 배타적 독자성이 상대적 우월성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남 <산악전설>의 풍수에서 확인되는 배타적인 독자성과 우월성은 같은 호남 권역의 전북 <산악전설>의 풍수형에서 궁극적으로 확인되는 종석적

편입성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전남 지역의 특수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고일 2022. 12. 5.

심사일 2023. 2. 1.

게재 확정일 2023. 2. 15.

주제어(keywords) 전남(Jeonnam), 산악(Mountain), 산악전설(Mountain Legend), 지역(Region), 정체성(Identity)

Abstract

The Existence Pattern and Regional Identity of the 〈Mountain Legend〉 in Jeollanam-do

Kwon, Do-kyung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dentity of the Jeonnam region as it differs from other regions through the characteristic existence of the 〈Mountain Legend〉 in Jeollanam-do. Jeollanam-do's 〈Mountain Legend〉 can be classified into a spirit type, pungsu type, and explanatory type.

Jeollanam-do's regional identity, which can be derived from Jeollanam-do's 〈Mountain Legend〉, can be summarized into two aspects: self-complete centrality and exclusive identity superiority. In relation to self-complete centrality, the origin of independent self-regulation recognition 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in Jeollanam-do is confirmed in the spirit type of the 〈Mountain Legend〉. This is consistently maintained in the spirit type of the 〈Mountain Legend〉 in Jeollanam-do, namely, that the subject of approval for the establishment of Joseon, an ethnic dynasty that ruled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as placed in the mountains of Jeollanam-do. As such, the movement of the Jeonnam mountains as the subject of Lee Seong-gye's approval for the establishment of Joseon in Jeonnam's 〈Mountain Legend〉 is internal to Jeollanam-do. Compared to Jeonbuk, the 〈Mountain Legend〉 was originally a mountain in Gyeongsang-do, not Jeonbuk. It was transferred to Jeonbuk after the founding of Joseon by Lee Seong-gye; thus, it has internal completeness in the region. Regarding connection with exclusive identity superiority, in the pungsu type of Jeonnam's 〈Mountain Legend〉, the exclusive independence not to be subordinate to the centralized administrative order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confirmed. The exclusive independence and superiority found in the pungsu of the 〈Mountain Legend〉 in Jeollanam-do Province is differentiated from the subordinate integration of the Jeonbuk 〈Mountain Legend〉 in the same Honam region.

